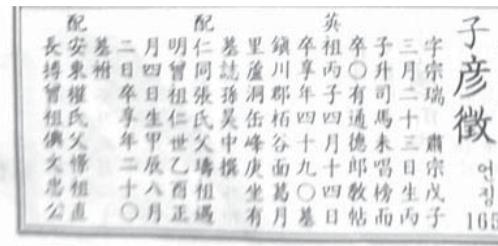


◆며느리권씨 일전 21-3

공인(恭人) 권씨(추밀공파 27세, 권경 權楨의 딸)

전주 이언징(李彦徵, 세종대왕 5子인 광평대군 11世)의 부인



이언징과 재배 안동권씨 경의 딸, 문충공 권근의 후예. 갑신년 10월 6일생 계축년 9월 20일 졸. 사진 이규흔

세 번째로 창원 황씨(昌原黃氏, 1715-1785). 구아들 승현(承顯) 경현(慶顯)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집(권씨 소생 이응현)에는 손자 3명이 있는데 호중(昊中) 돈중(敦中) 흥중(興中)입니다.

호중(昊中)의 아들은 네 명으로 의보(義輔) 의수(義守) 의호(義浩) 의용(義容)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어렸습니다.

오호라! 아버지의 덕과 행을 보면 두터우면서도 깊으십니다. 곧 큰 열매를 얻을 운세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겨우 장원급제를 해내신 상황에서 바로 중년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절연(折蓮, 급제及第)을 하셨고 상상(上庠,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가지 못하셔서 꼭 저승에서도 안타까운 한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문장과 덕망은 온 나라에 알려졌으나 평생 일곱 번째에 남성시(南省試, 진사시進士試)에 들어갔습니다. 뜻밖에도 돌아가신 일이 생길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자 바로 귀련(歸蓮, 급제)의 시를 쓰시니(死亡) 하느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인간에게 서을 교외 120리 추계현(秋溪縣) 남쪽 통산(通山) 자좌(子坐)의 평야에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옛 수찬공(修撰公) 이공(李公)의 묘입니다.

공은 숙종 때의 유명한 선비로서 갑신년 과거시험 기출에 평안도 장시관(掌試官, 시험관試驗官)이 임명되어 시험 장소에 가셨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조정에 보고하고 돌아가면서 길에서 급한 병(中風)에 걸려 여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밤새 찾아가서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가 하장(下葬)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이언징과 권씨 부인의 가계

이언징은 성군 세종대왕의 별자(別子) 광평대군을 1세로 하여 그 11세(世)이다. 여기서 세(世), 세손(世孫), 대(代) 문제를 불거져서 토론이 있었으나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후인들을 혼란하게 한바 안동권씨대종회에서 문제 삼아 연구팀까지 만들여 저술 [대조와 세손]이라는 책자까지 나온바 이를 참조하여 대와 세를 구분하지 않되, 세손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며 쓴다면 1세를 줄여야 한다. 위로 가면 5대조 이라고 쓰면 되고 세(世)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또 별자(別子)라는 말이 논란이 되어 살피니, 서자(庶子)를 별자라 하니 이 또한 어불성설이요, 특별히 아끼는 자식(別子)이라는 것도 억지이나 결국 천자(天子)의 아들이 아닌 제후(趙憲王)의 아들을 의미하지 않은가 생각하니 유명조선(有明朝鮮)과 함께 개념은 것 중의 하나이다.

이언징의 가계를 보면

세종대왕 이도-광평대군 이여-영순군 이부-회원군 이쟁-가평부정(종3품) 이정-진사 이구의(퇴휴당집)-교리(종5품) 이유일(수암집)-좌승지(정7품) 이상정(진천이주)-중추원 부사(정1품) 이주하-사용(정9품) 이청전-이언징(장원급제 발

표전일 사망, 부인 권씨) - 이응현(노곡집) - 이호중(효행) - 이의보(가은집) / 이의수(노계집) / 이의호(화암집)

이 왕족도 처음에는 삼대까지는 군호를 가지지만 이후는 종3품 정도로 낮아지고 그 다음은 일반 선비와 같이 각자도생하게 된다.

4세에 와서 진사(초시 합격) 정도에서 교리, 좌승지, 중추원 부사로까지 되지만 이언징의 급제 전 사망(승사마미창사(司馬未唱)) 이후 초야에 묻히게 된다.

좋은 점은 초야에 묻힌 이후 수명이 64세에서 74세로 모두 당시로서는 장수하였다.

권씨부인의 가계를 보자면

16세 권근 문충공 1352-1409 묘는 음성 삼대묘. 원래 경기 광주 - 17세 권제 문경공 1387-1445 묘 음성 삼대묘. 원래 경기 광주 - 18세 권휘 연천현감(연천공) 좌익원종공신2등급(계유정란) 1422년 생, 증손 권철 영의정 - 19세 권신 과천현감(과천공) 1438-1498 묘는 경기 광주 - 20세 권여 부장, (포도 청군관 종6품) 음성 이주 도회책韜晦策 수신제가 묘는 음성 - 21세 권해 동지중종부사(종2품, 명예직) 부인 정부인 묘는 음성 1514생 - 22세 권우 사직(정5품, 법관) 계자(9촌숙 보의 아들) 묘는 괴산 1534생 - 23세 권합 창봉(종9품, 능지기) 계자(11촌 숙의 아들) 묘는 괴산 1572생 - 24세 권전 선비, 묘는 괴산 1594생 - 25세 권박 직장(종7품) 묘는 괴산 추밀공파 박계 - 26세 권경 선비. 묘는 음성 1645생 - 27세 권씨부인 이언징 1726생 - 1790졸

문충공 근이 부친 권희와 태조 이성계와의 관계로 건국 조선에 관리가 되어 요직을 거치고 성균관 대사성 등 화려한 문벌을 만들고 아들 권제도 문경공으로 세종의 종애를 받는 중신이었다. 이후 연천 현감 권휘, 그러다가 증손자에 권철 영의정, 고손자 도원수 권율이 나온다. 그러나 21세 권여가 군관을 하다가 조상의 묘소가 있는 음성으로 이주하여 은둔한다. 이때 이언징의 가문도 평범한 선비의 집안이 된다. 이후 음성과 진천은 바로 옆이니 서로 교유하기 쉬웠을 것이고 수준도 비슷한 형편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초야에 묻힌 두 집안은 효행과 학덕으로 그 후손이 나타나고 결국 그와 같은 음덕의 결과로 서후손이 번창한 것이다.

이에 공인 권씨의 증손자 이의보(李義輔, 1767-1841)는 자신의 문집 가은집(稼隱集, 초야에 묻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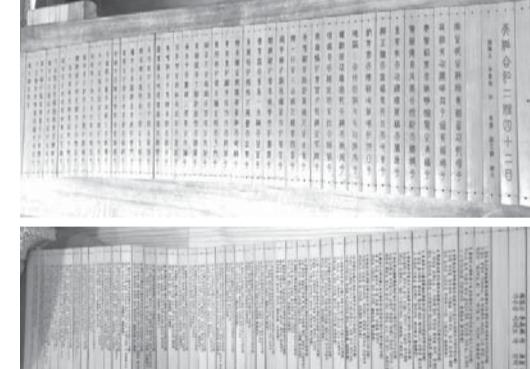


권씨부인의 손자 이호중의 묘비, 동몽교관은 낮은 벼슬이나 교육과 사신점대 등 문장가만이 할 수 있던 것이다. '출옹집'의 저자. 이호중 후손의 기록이 조상의 얼을 살린다. 사진 권오철

지은 농사와 글)에서 부부화합의 도를 말해주는 귀한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나름의 토를 달고 번역하다가 이를 죽간(竹簡)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조단지시. 모든 역사의 시작은 이것이었다. 주역 31형 택산함 남녀의 결합이다. 이 역사를 42개의 조로 만든 천작합어이성(二姓之合)의 원리. 죽간으로 만들어 배포하면 좋을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이 압권이다. '늙은이의 말이라 무시하지 말라'

사진 권오철

과거를 밝혀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우리 유행가 중에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란 노래가 있는데, 우리 세법에는 "과거를 밝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라는 규정이 증여세법에 있다.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것이며, 현행 세법 규정상 이 자금출처에 관한 조사만 끝나면 모든 세무조사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오영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과세여부를 조사한다.

입증자료의 사전준비

세무당국에 의한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면 우선 이미 신고된 소득자료나 다른 재산의 매각자료 등으로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다른 가족에게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자료나 차입한 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소득별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처분금액에서 관련 세금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됨

신고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경우에는 관련 소득세와 주민세를 뺀 금액-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됨

부채로 조달한 금액은 재산등의 취득일 이전에 차입한 대출금으로서 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금-부채증명서에 의해 확인됨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재산 등을 취득한 날 이전에 계약되어 받은 전세금 등-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함

상속받은 재산 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 받은 재산금액-상속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됨

증여받은 재산 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받은 재산을 의미하며, 증여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됨. 이 경우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만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구입자금의 20% 또는 2억 원의 여유분이 아니고 구입자금 전액을 입증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상증세사무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출력·통보하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서면분석대상자를 서면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면대상자와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세금누락혐의에 대하여 수시로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탈세재보, 세무조사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금출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서면대상자인자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해당자료를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다.

만약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단순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신의 알갱이들이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고, 물체는 그 알갱이들이 엉겨서 된 덩어리가 된 것이고, 경결은 이 덩어리들이 굳어버린 것이다. 이 굳어버린 정도가 심한 것이 바로 암이다. 그렇다면 순환장애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그 주제는 무엇일까?

첫째 주위(기온변화)이고, 둘째는 음식이다. 음식은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 과식하고 있다. 즉 기, 혈, 신의 순환이 생명이다. 기는 호흡을 통해, 혈은 음식을 통해, 신은 의식(생각)을 통해 몸에 들어와 순환하며 생명을 영위하고 있다. 경락과 혈관과 신경라인은 기, 혈, 신이 다니는 통로이다.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숨쉬는 것, 피가 흐르는 것, 인체의 모든 감지작용 등이 모두가 모두 기, 혈, 신이 스스로 순환하고 있다. 인체의 90%이상이 자율신경계에 의해 이루어 진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기구질뿐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스스로 살아 있는 몸, 무얼 그리 살려고 하는가? 뜻있는 일에 죽고자 해야 열매가 있고 생명의 진화가 있는 법이다.

논리가 결길로 가려고 한다. 제자리로 가자. 몸(물통)에 기, 혈, 신이 순환하는데 장애를 받으면 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순환장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맞으면 수, 기, 혈, 신의 알갱이들이 놀라게 되고 그 정도와 시간에 따라 아픈 부위가 다를 뿐이다. 수 만 가지 병명이 따로 있고 그에 따른 약은 수십만 가지가 있고, 셀 수

정도로 차갑다. 동성상응(同聲相應)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같은 소리엔 공통된 의미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어두움, 바위, 종양을 모두 암(暗, 岩, 癊)이라 한다. 보라, 어두움은 차고 겹다. 바위는 차고 겹고 딱딱하다. 종양도 차고 겹고 딱딱하다. 몸에서 차거나 딱딱하고 겹은 부위는 순환장애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어깨가 끓쳐 아프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딱딱하다는 말이고 순환이 잘 안 된다는 말이다. 어깨뿐만 아니라 명치 주위나 아랫배가 차거나 뭉쳤다는 경우를 흔히 듣고 보게 된다. 그런 경우는 현재 병을 호소하거나 조만간 병으로 심각해 질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의학에서 말하는 수 만 가지 병명과 그 양상은 순환장애의 결과일 뿐이다. 그 순환장애의 결과는 셀 수 없으리만큼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된다. 다시 말해서 병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만 갈 것이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도 병이 무엇인지 이해하리라고 본다. 병의 치료에 대하여는 다음으로 넘기자.

질병(疾病)

권용만 교수



질병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생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주만물의 이치를 모두 안다는 것과 같음으로 감히 인간의 지혜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 러니 질병이 무엇인지를 전제로 병의 원인을 좁혀 논해 보자.

살았다. 죽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인데 살아 있다는 말은 생명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생명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은 움직임이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러면 생명작용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의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 그 움직임은 회전이고 순환이다. 즉, 돌아간다는 말이다. 생명은 돌아면서 변화를 일으킨다.

원자도 돌고, 지구도 돌고, 태양계와 은하계, 이 모든 우주는 돋는다.

인간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만물이 생명체인 것이다. 아니 물체가 생명이 아니라 순환작용이 생명인

것이다. 팽이가 돌아갈 때 우리는 살았다고 말한다. 종알도 돌면서 날아갈 때 살아 있는 것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으나 요즘은 태풍의 사전을 통해 바람의 모양을 볼 수 있고 방향도 대충 알 수 있다. 태풍의 사전은 태풍의 핵을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 모습이다.

칼기에 물을 부으면 남극에선 시계방향으로 돌며 내려가고 북극에선 그 반대 방향으로 돌며 내려간다. 태풍의 소용돌이도 이와 같다.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 선생은 "현묘지도풍류(玄妙之地風流)" 즉, 바람의 흐름(循環)을 도(道), 생명이라고 하였다.

돌아감 즉, 순환이 도(道)로 생명의 양상인데 순환이 면밀한 상태를 생각해 보자!

광화문 사거리의 교통체증, 조직의 인사적제,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정치의 대화 불통, 입출이 지나서도 계속되는 겨울 등,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모두가 다 병인 것이다.

도(道)란 하나로 만상을 뛰어넘어 보는 눈이다.

병이란